

부모감독이 학교부적응과 청소년  
비행경로에 미치는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서 정 민 (Seo, Jeong-min)\*

(E-mail : dunord@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13년 12월 31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2월 20일

\* 학위취득대학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박통합과정 입학  
현직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박통합과정 재학

부모감독이 학교부적응과 청소년  
비행경로에 미치는 매개효과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감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종단연구이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학교부적응뿐만 아니라 부모감독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 또한 검증할 수 있도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부모감독과 청소년비행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이 고 1에서 고 3까지의 청소년 후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부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부모감독의 초기값을 통해 청소년비행의 초기값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학교부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부모감독의 변화율을 통해 청소년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감독은 학교부적응이나 청소년비행의 초기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제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 비행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잠재성장모형, 종단적 매개효과, 학교부적응,  
청소년비행, 부모감독

## I. 서론

2010년의 청소년 현황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38.5%로 청소년 범죄율의 감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강력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청소년통계). 청소년 비행도 청소년 범죄의 유형처럼 양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낮은 시작 연령, 난폭한 특성 그리고 높은 재범률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김혜래·이혜원 2007).

청소년 비행은 가족결속력의 약화, 입시위주 교육, 무방비상태의 향락문화 등에 의해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나 가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교육, 지역사회의 통합관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비행증가와 제시되고 있는 대안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특성은 아동기에서 시작되어 유지되고 발전되듯이(Montague and Enders et. al. 2011), 청소년의 성장 배경은 인간의 특성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의 한 단계이다. 청소년 성장 발달과정에서 학교와 가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따르는 부모감독의 변화궤적을 활용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비행의 실천개입의 정당성과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 측면은 충동성, 공

격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등의 요인이 있으며, 환경적 측면은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정서적 유대감, 부모의 지도감독과 같은 통제, 교사나 학교에 대한 애착, 학업성적, 비행친구의 유무 및 애착정도 등의 요인이 있다(김경 2010).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청소년 비행요인은 다양하지만, 청소년의 발달기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개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난다(정익중·Hawkins 2002; 최선희·김희수 2008). 이러한 특성은 가족, 지역사회, 학교 등의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또한, 입시 스트레스나 과열된 사회진출의 압박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은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부담과 다양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기 보다는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주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발달기의 특성과 주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박병금·윤희미 2005).

학교나 가정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적응, 청소년 비행 그리고 부모감독의 모든 변수를 활용한 발달궤적 연구는 거의 없으며, 정병삼(2010)의 연구 정도가 있다. 정병삼의 연구는 비행친구접촉과 청소년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종단적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패널(KYPS)의 5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부모감독이 비행친구 접촉뿐만 아니라 일탈행동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청소년 비행에 대한 부모의 개입의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세 변수를 활용한 횡적 연구로는 문과 마쉬(Moon and Moarsh 2004)의 연구가 있다. 문과 마쉬(Moon and Moarsh)는 400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부모폭언, 체벌, 물질적 요인 등과 함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범관련 긴장과 교사의 폭언과 체벌을 추가하였다(황혜원 2009). 문과 마쉬(Moon and

Moarsh) 연구의 특별한 부분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된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청소년 비행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횡단연구의 한계로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비행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황혜원 2009).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학습과 생활이 이뤄지는 중요한 장소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 중, 고의 진학률이 99%이상으로,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환경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회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학교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약 4만 여명(43.4%)에 이르며, 그 과정의 첫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교부적응은 청소년의 비행에도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 부적응은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에서 새로운 설정을 요구한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한 하위개념으로는 부모 애착과 부모감독이 있다. 최근의 연구는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이상균 2008; 박현선·이상균 2008; 이주리 2008). 부모애착은 부모자녀의 유대관계의 표현이고, 부모감독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통제를 의미한다(김경 2010).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청소년에 대한 애착보다는 감독 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감독의 매개효과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와 성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다른 연구방법과는 달리 잠재요인의 평균과 공분산구조를 동시에 모형화 할 수 있고 개인집단의 성장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면 잠재요인으로서 학교부적응과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문제는 학교부적응의 변화궤적이 비행의 발달궤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감독의 변화궤적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토대로 비행 예방을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감독 역할의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부적응의 발달궤적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서, 청소년의 대부분의 생활이 이뤄지는 학교의 부적응은 청소년 성장과정에서 발달과업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박정주 2011). 청소년의 사회 적응은 환경의 적절한 조절 능력의 의미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환경 변화에 의한 제반활동도 포함된다(Zastrow and Kirst-Ashman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청소년의 사회인 학교생활의 적응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적 작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은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까지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저마인(Germain 1993)이 언급한 것처럼, 생존과 성장 그리고 생산적 기능 등의 충족과 같은 환경의 극복과정이 적응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사회 적응은 환경변화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능력이나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연령증가에 따라 향상되는 능력 및 축적된 경험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백혜정 2007; 황성혜 2010; 박정주 2011).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의 감소 또는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Simons-Morton and Crump 2003; 조미형·이정은 2008). 그 이유는 상급학교 진학에 따르는 전이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원인을 변화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에서 찾기 때문이

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기도 한다(최정아 2011).

학교부적응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행동은 학습활동, 규칙준수,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등 여러 가지 학교생활의 하위영역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학교부적응에 대한 척도가 학업에서 점차 친구애착, 교사애착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 된다(박정주 2011). 두보이스와 아이텔 등(Dubois and Eitel et. al. 1994)은 학업과 관련된 성적, 자아개념 그리고 학교출석일로 학교적응을 개념화 하였다. 그리고 번트와 키프(Berndt and Keefe 1995)는 수업활동의 참여와 행동 그리고 학업성취도로, 쿠르덱과 파인 등(Kurdeck and Fine et. al. 1995)은 학업과 관련된 성적, 기초지식 그리고 문제행동까지 포함을 하여 학교적응을 측정 하였다.

반면에 비어맨(Bierman 1994)은 학업성취도를 포함하는 학업적 적응, 자기통제능력과 같은 행동적 적응, 사회적 기술과 동료집단의 특성을 포함하는 사회정서적 적응 등의 세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규미(2004)가 학업과 관련된 행동, 교칙과 관련된 문제행동, 교우와 교사관계, 공격성, 우울 반응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학교부적응의 척도를 세분화 하였고, 문은식(2005)도 수업과 관련된 학업적 적응, 규칙과 사교성을 포함한 사회적 적응, 학교의 선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포괄하는 정의적 적응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2.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과 부모감독

청소년 비행의 명확한 정의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와 절도와 주거침입 같은 재산범죄를 포함하는 중범죄가 있으며, 사소하고 빈번하게 행해지는 형법에 대한 위반 행위로서 경비행,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등

과 같은 지위비행으로 구분이 된다.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는 학교, 가족(가정), 친구와 같은 변인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제어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상균(2009)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균(2009)은 청소년 비행행동이 청소년 후기까지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유효하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스테인저와 아헨바흐 등(Stanger and Achenbach et. al. 1997)은 4~18세에 해당하는 1,139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5번의 측정을 10년 동안 측정하여 비행행동을 연구하였다. 비행행동은 4세부터 10세까지는 감소하지만, 10세이후 17세까지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본저스와 코트 등(Bongers and Koot et. al. 2003)은 어머니들을 활용하여 4세부터 16세까지의 2,076명 아동청소년을 5년간 조사한 종단자료로 비행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비행은 11세까지 'U'자형 곡선의 증가를 보이며, 성별에 있어서도 남자청소년의 비행이 여자 청소년의 비행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그 변화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레버와 스토우사머-레버(Loeber and Stouthamer-Loeber 1991)의 연구에서도 아동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비행 유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라우덴부스와 찬(Raudenbus and Chan, 1998)의 연구는 남녀 청소년 모두 문제행동의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남자 청소년의 비행 변화율이 여자 청소년의 비행 변화율이 높은 결과를 제시한다. 베이어스와 베이츠 등(Beyers and Bates et. al. 2003)은 부모감독이 문제행동의 변화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적극적 관여가 청소년 비행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acaramella and Congers et al. 1999; 이상균 2008). 특히, 212명의 청소년을 3개년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데코빅과 부이스트 등(Dekovic

and Buist et. al. 2004)은 문제행동의 궤적에 성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관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외현화와 내현화로 구별하였다. 연구결과 외현화의 문제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행동의 궤적이 증가한 반면, 성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 관계는 문제행동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 발달궤적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소희(2007)는 중 2에서 고1까지의 3차년도(중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비행의 14가지 경험 유무에 대한 평균점수로 비행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여준 3년간의 발달궤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중2부터 고2까지의 4차년도(중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지위비행, 재산비행(절도), 폭력비행으로 구분한 김원정(2008)은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즉, 지위비행은 2차년도에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U"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절도비행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며, 마지막으로 폭력비행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원정(2009)과 마찬가지로 4차년도(중단자료)를 활용하여 비행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한 박현수·김준호(2008)는 경비행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비행의 지속적인 감소 결과를 보여준다. 중3에서 고2까지를 연구한 이상균(2008)도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행동의 정의와 측정시점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특성과 추세는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여러 연구결과를 넓게 분류해 보면, 성인기에는 허용되지만 청소년기에는 비행으로 인식되는 지위비행과 같은 경비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고 중비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정병삼(2010)은 비행친구 접촉과 청소년 일탈 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지도 감독의 중단적 억제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부모지도감독은 중단적으로 비행친구 접촉과 일탈행위에 유의미한 억제 효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도 유의미하게 보고되고 있

으며, 이상균(2009)은 부모의 지도감독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경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정소희(2009)는 비행의 발달궤적에 첫째의 부모감독을 예측변수로 추가하여 검증하였으나 유의미하게 그 값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 III. 분석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료는 청소년 패널(Korea Youth Pannel Survey, KYPS)의 중 2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를 위한 분석 도구는 통계패키지인 PASW 19.0을 이용하였고, 연구모형을 위한 분석은 통계패키지 Amos 19.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패널조사는 2003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2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표집의 방식을 통해 추출된 3,449명(남:1,725명, 여:1,724명)의 연구대상자를 수집하였고, 이후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를 매년 추적 조사하였다. 연구에서는 2차년도(중3, 2004)에서 4차년도(2006)의 학교부적응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부모감독과 청소년 비행은 3차년도(2005)에서 5차년도(2007)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학교부적응(독립변수)

학교부적응 척도로는 총 5개의 질문을 활용하였다(<표 1>참고).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2004년 .726, 2005년 .739, 2006년 .768로 나타났다.

<표 1> 학교부적응 척도

번호	문항내용
1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2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3	비행(범죄)으로 학교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4	학교 규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렵다
5	비행(범죄)으로 학교의 경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2) 부모감독(매개변수)

부모감독은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파악 정도와 통제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목은 <표 2>와 같으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alpha$ 는 2005년 .885, 2006년 .880, 2007년 .894로 나타났다.

<표 2> 부모감독의 척도

번호	문항내용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청소년 비행(종속변수)

청소년 비행은 20개의 척도에 해당 유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을 하였다 (<표 3>참고). 청소년 비행의 척도 분포가 편포되어 제곱근으로 전환하였다.

<표 3> 청소년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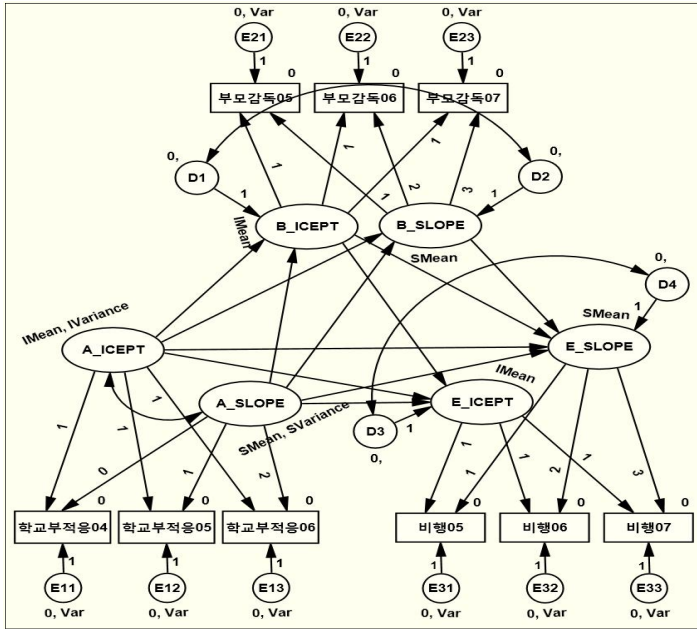
구분	문항내용
유형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하기,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헐박하기, 다른 친구들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의로 허위정보 유포하기, 인터넷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주민번호 무단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 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의 컴퓨터, 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

3. 연구모형 및 방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은 2차에서 4차년도의 데이터를, 부모감독과 청소년 비행은 3차에서 5차년의 데이터를 각각 사용하였다.

각 잠재변인의 변화율 요인 부하계수 값을 2차년도는 0, 3차년도는 1, 4차년도는 2, 5차년도 3의 값을 부여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교부적응은 부모감독과 청소년비행의 초기값에도 영향을 주는 반면에, 부모감독은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잠재성장모형은 잠재 변인의 변화를 간명히 설명하는 함수의 정의와 그 변화에서 개인간 차이가 유의미성을 검증하는데 활용된다(김주환·김민규 외 2008). 모델의 적합도는  $\chi^2$ , RMSEA, TLI, CFI 등을 활용한다. 자유도(df)와 함께 제시되는  $\chi^2$ 은 실제 데이터와 차이로 모형이 적절하지 못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시된다. 하지만,  $\chi^2$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TLI나 RMSEA는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모형적합도를 제시한다(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매우 우수한 적합도이고 .05와 .08사이의 값은 적합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10 이상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

(Brown and Cudeck 1993; Kline 2004), NFI, CFI, TLI의 값은 .90보다 크면 연구자의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Hu and Bentler 1999; Kline 2004).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계수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주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계수가 유의함을 확인해야 한다.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 패널데이터의 연구조사에 참여 대상자로서 2004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6.2%, 여학생이 46.2% 그리고 결측은 7.6%로 나타났다. 재학생과 비재학생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명)	비율(%)
성별	남	1,594	46.2
	여	1,594	46.2
	결측	261	7.6
	<b>합계</b>	<b>3,449</b>	<b>100</b>
학생여부(2004)	재학	3,183	92.3
	비재학	5	0.1
	결측	261	7.6
	<b>합계</b>	<b>3,449</b>	<b>100</b>
학생여부(2007)	재학	2,914	84.5
	비재학	53	1.5
	결측	482	14.0
	<b>합계</b>	<b>3,449</b>	<b>100</b>

## 2. 주요변인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 1) 변수별 기초 통계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는 <표 5>와 같다. 평균값은 각 변수의 측정점수를 평균으로 구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의 값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의 기준이 되는 왜도의 값은 3보다 크고, 첨도의 값은 10 미만인 경우에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다(Kline 2004).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 중 청소년 비행은 4차년도와 5차년도에서 첨도 값이 그 범위를 벗어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특성상 정규성의 확보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 확보를 위해 제곱근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변수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학교부적응, 부모감독 그리고 청소년 비행 모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 변수별 기술적 통계

변수명		N(명)	평균	표준편차	분산	왜도	첨도
학교 부적응	2004년(중3)	3188	1.6694	.62497	.391	.806	.554
	2005년(고1)	3125	1.6974	.62178	.387	.863	.684
	2006년(고2)	3121	1.7327	.65116	.424	.763	.299
부모 감독	2005년(고1)	3125	3.3760	.83446	.696	-.195	-.106
	2006년(고2)	3120	3.4211	.81727	.668	-.241	.090
	2007년(고3)	2958	3.4488	.84520	.714	-.302	.105
청소년 비행	2005년(고1)	3125	.8047	.75169	.585	.363	-.770
	2006년(고2)	3121	.8549	.75003	.583	.290	-.645
	2007년(고3)	2958	.9206	.72617	.527	.108	-.608

### 2) 잠재변인별 상관관계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학교

부적응의 3년간의 관계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학교부적응과 부모감독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학교부적응과 청소년비행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부적응, 부모감독, 청소년비행의 각 잠재변수간의 3개년 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은 학교부적응과 부모감독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잠재변인별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1								
②	.449**	1							
③	.370**	.491**	1						
④	-.173**	-.193**	-.180**	1					
⑤	-.149**	-.157**	-.209**	.493**	1				
⑥	-.168**	-.137**	-.169**	.468**	.523**	1			
⑦	.208**	.230**	.178**	-.142**	-.116**	-.127**	1		
⑧	.165**	.202**	.219**	-.136**	-.141**	-.146**	.479**	1	
⑨	.144**	.162**	.202**	-.149**	-.144**	-.174**	.394**	.5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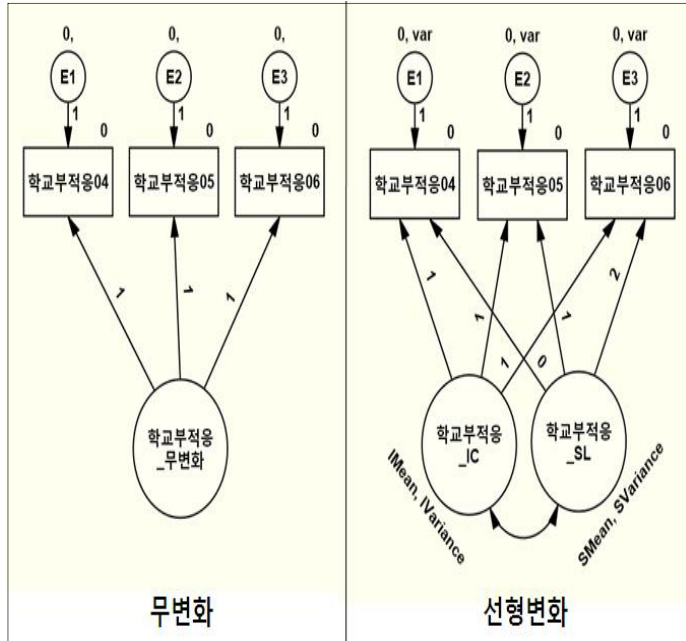
\*\*p<.001, 참고 ① 학교부적응(2004) ② 학교부적응(2005) ③ 학교부적응(2006)  
④ 부모감독(2005) ⑤ 부모감독(2006) ⑥ 부모감독(2007)  
⑦ 청소년비행(2005) ⑧ 청소년비행(2006) ⑨ 청소년비행(2007)

### 3. 학교부적응, 부모감독, 청소년 비행의 잠재성장 모형 확인

학교부적응, 부모감독과 비행의 측정시점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가지는지 확인을 위해 무변화와 선형변화의 잠재성장 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2>참고).



<그림 2> 개별 변수의 무변화와 선형변화 모형 예시



먼저 무변화 모델로 초기값은 3번의 측정시기가 있고, 초기값에서 각 시점의 측정치로 향하는 요인적재량을 모두 1로 고정하고, 오차분산의 동질성을 가정한 후 초기값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형변화 모형은 초기값에서 각 시점의 측정치로 향하는 화살표를 모두 1로 고정하고, 측정간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변화율은 0,1,2,3으로 고정한 후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에서 학교부적응, 부모감독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변화계측은 선형모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잠재변인별 성장모형의 확인

변수구분		$\chi^2(df)$	p	TLI	CFI	RMSEA(LO~HI)
학교부적응	무변화	70.531(4)	.000	0.938	0.959	0.069(0.056~0.084)
	선형	<b>7.352(3)</b>	<b>.061</b>	<b>0.995</b>	<b>0.997</b>	<b>0.021(0.000~0.040)</b>
부모감독	무변화	31.831(4)	.000	0.979	0.986	0.045(0.031~0.060)
	선형	<b>2.841(3)</b>	<b>.417</b>	<b>1.000</b>	<b>1.000</b>	<b>0.000(0.000~0.028)</b>
청소년비행	무변화	104.827(4)	.000	0.914	0.943	0.086(0.072~0.100)
	선형	<b>22.631(3)</b>	<b>.000</b>	<b>0.978</b>	<b>0.989</b>	<b>0.044(0.028~0.061)</b>

선형모형에서 얻은 학교부적응, 부모감독과 청소년비행에 대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값은 <표 8>과 같다. 학교부적응의 경우, 초기값은 1.633, 변화율은 0.032로 두 값 모두 유의미 하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학교부적응의 초기값이 높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감독의 경우에도, 초기치의 값이 3.336, 변화율이 0.039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0.043이 모두 유의미 하였다. 이것은 1차년도 부모감독의 평균값이 3.336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감독이 0.039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부모감독이 높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부모감독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서도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의 비행의 평균값은 0.747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 비행은 0.056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공분산이 부적의 값을 가지므로, 청소년 비행이 초기에 높은 학생이 완만하게 높아지고, 낮은 수준의 학생은 해가 갈수록 변화율이 가파르게 높아짐을 의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낮은 수준의 학생이 비행수준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적 수치라기보다는 청소년비행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 경비행과 같

은 약한 비행으로 그 값이 상승한 결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변수 모두에서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서 분산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각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라 초기값과 변화율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예측변수의 투입으로 모형 확장이 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8> 잠재변인별 발달궤적 비교

변수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
학교부적응	초기값	1.633(.011)***	0.197(.010)***	-0.022(.005)***
	변화율	0.032(.006)***	0.031(.004)***	
부모감독	초기값	3.336(.020)***	0.423(.036)***	-0.043(.014)**
	변화율	0.039(.008)***	0.025(.007)***	
청소년비행	초기값	0.747(.018)***	0.419(.031)***	-0.071(.012)***
	변화율	0.056(.007)***	0.033(.006)***	

\*\*\*p<0.001, \*\*p<0.01

#### 4. 부모감독을 매개로한 학교부적응과 청소년비행의 잠재성장 모형 확인

본 연구의 잠재성장모형의 확인은 선형모형으로 설정하여, 학교부적응과 매개적 기능으로서 부모감독의 잠재성장이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9>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  280.805(31), TLI .0.940, CFI .9587, RMSEA .048로서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9>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분	$\chi^2(df)$	p	TLI	CFI	RMSEA(LO~HI)
모델적합도 지수	280.805(31)	.000	0.940	0.958	0.048(0.043~0.054)

부모감독이 학교부적응과 청소년 비행경로에 미치는 매개효과 157

잠재변인인 부모감독을 매개로 하여 잠재변인인 학교부적응이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회귀계수 추정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부모감독을 매개로 한 학교부적응이 청소년 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학교부적응_IC → 부모감독_IC	1.725	.800	0.398	4.332***
학교부적응_IC → 부모감독_SL	-0.009	-.013	0.017	-0.511
학교부적응_SL → 부모감독_IC	-34.975	-1.132	17.256	-2.037*
학교부적응_SL → 부모감독_SL	0.678	.069	0.658	0.302
학교부적응_IC → 청소년비행_IC	-0.912	-.050	0.355	-2.568*
학교부적응_IC → 청소년비행_SL	0.159	.302	0.065	2.446*
학교부적응_SL → 청소년비행_IC	23.562	.890	12.321	1.912
학교부적응_SL → 청소년비행_SL	-3.483	-.461	2.028	-1.717
부모감독_IC → 청소년비행_IC	-0.043	-.050	0.076	-0.567
부모감독_IC → 청소년비행_SL	-0.036	-.146	0.016	-2.165*
부모감독_SL → 청소년비행_SL	-0.154	-.201	0.043	-3.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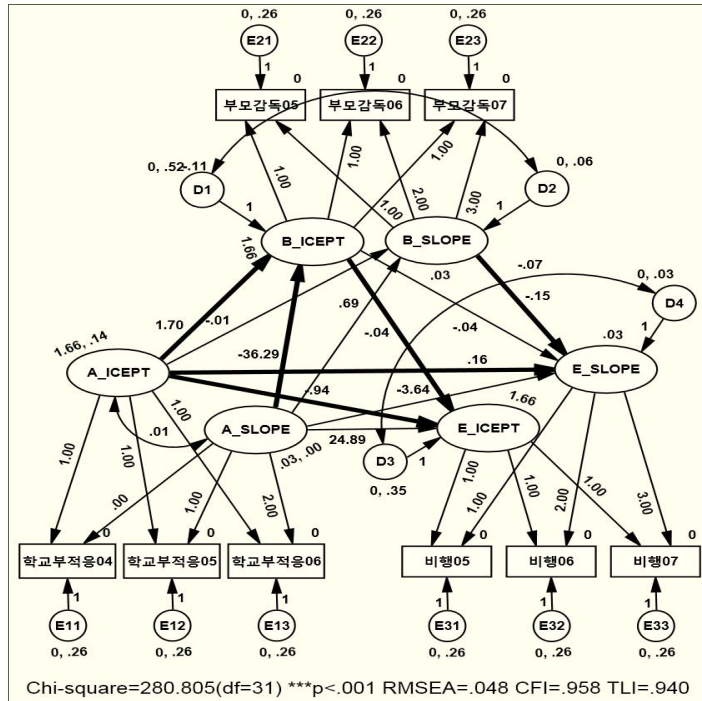
\*\*\*p<0.001, \*\*p<0.01, \*p<0.05

학교부적응의 초기값은 부모감독 초기값( $\beta=1.725$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부모감독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부적응의 변화율도 부모감독의 초기값( $\beta=-34.975$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부적응의 초기값은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 $\beta=-.912$ )과 변화율( $\beta=.159$ )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교부적응의 변화율은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모감독의 초기값은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청소년 비행의 변화율( $\beta=-.036$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부모감독의 변화율은 청소년

158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8집

비행의 변화율(-.0154)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결과(굵은 색은 유의미한 값)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부적응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감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학교부적응의 초기값은 부모감독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학교부적응의 변화율도 학교부적응의 초기값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행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부적응의 변화율에서 청소년비행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 V. 결론 및 제언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증가는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인 학교 부적응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 감독과 통제가 철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학교의 부적응의 변화에 따르는 청소년 비행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모감독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종단적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학교부적응뿐만 아니라 부모감독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 또한 검증할 수 있도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학교부적응은 교사관계, 학교규칙, 교우관계를 하위변인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패널에서 제시되고 있는 척도 20개의 해당 유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을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의 초기값은 1.633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0.022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감독은 초기값이 3.336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43씩 감소하며, 청소년 비행은 초기값이 0.747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71만큼 감소하였다. 학교부적응, 부모감독, 비행 모두 초기값이 높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화의 경향을 보이며 모두 유의미 하였다.

그리고 학교부적응, 부모감독, 청소년비행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비행이 점차 증가하는 이상균(2009)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지만, 학교부적응이 감소한다고 제시한 백혜정(2007), 황성혜(2010) 그리고 최정아(2011)의

연구결과와는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학교부적응, 부모감독,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의 특성은 연구대상이 고 1에서 고 3까지의 청소년 후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 학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박정주 2011).

둘째, 학교부적응 초기값은 부모감독 초기값에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못하였다. 학교부적응의 변화율은 부모감독의 초기값에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부모감독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학교부적응의 초기값은 청소년비행의 초기값에는 부적으로, 변화율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모두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모감독의 초기값은 청소년 비행의 변화율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부모감독 변화율도 청소년비행의 변화율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문제행동의 궤적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한 반면에 부모와 자녀관계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데코빅과 부이스트 등(Dekovic and Buist et al. 2004)의 선행연구와 비행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부모감독의 관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행친구 접촉과 청소년 일탈 행동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종단적 억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정병삼(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기된 부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부적응과 청소년비행의 변화에 따른 부모감독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청소년비행 변화율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로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부모감독은 학교부적응이나 청소년비행에서 매우 중요한 제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구가 갖는 한계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둘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자료확보를 위해 모든 비행을 다 포함시켰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의 여러 가지 특성상 경비행과 중비행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박현수·김준호 2008). 하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행에 대한 분류별이나 비행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감독으로서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교류의 장은 학교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부적응을 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부모를 포함하는 청소년 관련 공공포럼이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의 마지막 발달단계의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그 앞 단계인 초기의 초등학교나 중기의 중학교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성인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김경, 2010,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pp. 1-21.
- 김원정, 2008,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의 변화와 통제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주환·김민규·진영재, 2008, “미디어 이용이 후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4, pp. 76-107.
- 김혜래·이해원, 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지위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pp. 33-63.
- 문은식, 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4), pp. 1087-1108.
- 박병급·윤혜미,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pp. 133-165.
- 박정주, 2011, “교사에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pp. 333-352.
- 박현선·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pp. 327-356.
- 박현수·김준호, 2008, “비행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친구와의 친밀성과 비행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9(1), pp. 327-356.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pp. 357-373.
- 이규미, 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지표”,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16(2), pp. 227-241.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협요인”, 『사회복지연구』, 39, pp. 315-542.
- , 2009, “청소년기 경비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 청소년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가”, 『한국가족복지학』, 27, pp. 243-266.
- 정병삼, 2010,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중단적 억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8(2), pp. 149-165.
- 정익중·J. D. Hawkins, 2002,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비행발달궤적변화의 예측 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20, pp. 173-199.
- 조미형·이정은, 2008,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schooltransition)에서 학교적응변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2), pp. 63-86.
- 최선희·김희수, 2008, “아동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상호작용”, 『한국아동복지학』, 21, pp. 233-258.
- 최정아, 2011,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지지, 자아통제력, 학교적응의 중단적 관계”, 『사회과학연구』, 27(3), pp. 189-212.
- 황성혜, 2010,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발달궤적 연구: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7(4), pp. 211-239.
- 황혜원, 2009, “한국 청소년 비행의 이해를 위한 중단적 연구: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3(1), pp. 1-31.
- Berndt, T. J. & K. Keefe, 2005, "Tr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pp. 1312-1329.
- Beyers, J. M. Bates, J. E., Pettit, G. S. & Kenneth A. Dodge,

- 2003, "Neighborhood Structure, Parenting Processes, and the Development of Youth's Externalizing Behaviors: Amultilev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2), pp. 33-53.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Corsini, R. J.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 3(2nd ed), John Weley & Sones
- Bongers, I. L., Koot, H. M., Ende, J. V. & F. C. Verhulst,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0), pp. 179-192
- Browne, M. W., &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ery Park, CA: Sage.
- Conroy, M. A. & W. H. Brown, 2004, "Early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with Young Children at Risk for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Issues, Trends, and a Call for Action," *Behavioral Disorders*, 29, pp. 224 - 236.
- Dekovic, M., Buist, K. L. & E. Reitz, 2004, "Stability and Changes in Problem Behavior during Adolescence: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1), pp. 1-12.
- Dubious, D. L., Eitel, S. K. & R. D. Felender,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pp. 405-414.
- Germain, C. B., 1983, "Time, Social Change and Social Work," *Social Work in Health Care*, 9(2), pp. 15-23.
- Hu, L. T., & P. M. Bentler, 1999, "Cutoff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pp. 1-55.
- Kurdek, L. A., Fine, M. A. & R. J. Sinclair,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ac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 pp. 326-362.
- Lober, R. & M. Stouthaner-Lober,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Misconception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2), pp. 242-259.
- \_\_\_\_\_, 1991, "Initiation, Escalation and Desistance in Uvenile Offending and Their Correlates," *Journal of Criminal Law & Chrinology*, 82, pp. 36-50.
- Merydith, S. P., 2001, "Temporal St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of the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 pp. 253 - 265.
- Montague M., Enders C., Wendy Cavendish W. & Castro M., 2011, "Academic and Behavioral Trajectories for At-Risk Adolescents in Urban Schools," *Behavioral Disorders*, 36 (2), pp. 141 - 156.
- Moon, B., & M. Moarsh, 2004, "Adaption of Theory for Alternative Culturll Context : Agenw's General Strain Theor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28(2), pp. 77-104.
- Raudenbush, S. W., & W. Chan, 1998, "Application of Hierarchical Liner Model to the Study of Adolescent

- Deviance in an Overlapping Cohort Desig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6), pp. 941-951.
- Raver, C., 2002, "Emotions matter: Making the Case for the Role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 for Early school Readiness," *Social Policy Report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6, pp. 1 - 20.
- Rex B. Kline, 2004,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현숙·김수진·전수현. 편역, 2010, 『구조방정식의 모형 원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Ryan, B.A., and G. R. Adams, 1995,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s Model," in. B. A. Ryan, G. R. Adams, T. P. Gullotta, R. P. Weissberg, and R. L. Hampton(Eds.), *The Family-School Connection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Sage.
- Scramella, L. C., Congers, R. D., & R. L. Simons, 1999, "Parental Protective Influences and Gender-Specific Increases i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 pp. 111-141.
- Simons-Morton, B. G. and A. D. Crump,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4(3), pp. 121-126.
- Stanger, C., Achenbach, T. M., & F. Verhulst, 1997, "Accelerated Longitudinal Comparisons of Aggressive versus Delinquent Syndromes," *Development and Psychology*, 9, pp. 43-58
- Zastrow, C. and Kirst-Ashman, 2001,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5th ed.), CA: Brooks/Cole.

## The Longitudinal Analysis between School Maladjust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Mediated by Parental Monitoring

Seo, Jeong-min  
(Catholic University)

### Abstract

Juvenile delinquency which is affected by School Maladjustment is the cause of youth suicide and school violence.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in educational situations of Korea is not easy. Therefore, we attempt to find way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from school maladjustment by its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Data were obtained from the third to five wave data (middle school panel) of 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The result showed that Juvenile delinquency, parental monitoring growth and School Maladjustment has decreased over time. After studying the data, the intercept of parental monitoring as a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between the intercept and slope of school maladjustment and the intercept of juvenile delinquency, otherwise, the slope of parental monitoring as a mediating effect was non-significant between the slope of school maladjustment and the slope of juvenile delinquency. From these results, the role of parents was still important.

**Keywords :** Latent growth Model, development trajectory,  
school maladjustment, juvenile delinquency,  
parental monitoring